

산업부, 섬유패션 빅데이터 구축 본격화

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(2022. 9. 30.)

 산업통상자원부는 섬유패션 분야의 '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' 구축에 본격 착수하여 데이터 활용 편의성의 향상과 빅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.

- 산업통상자원부는 9.30.(금) 서울 섬유센터에서 섬유패션 관련 협회, 연구원과 함께 '섬유패션 데이터 얼라이언스'를 출범하고 섬유패션 분야의 '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'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.
- － 빅데이터 플랫폼은 연내 섬유패션 분야의 핵심 데이터 항목 선정, '23년 데이터 표준화 마련, '24년 빅데이터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순서로 구축될 예정이며, 세부 청사진인 정보화전략계획(ISP) 수립이 연내 완료 예정

[섬유패션 빅데이터 플랫폼 개념도]



- 현재까지는 섬유패션 데이터가 여러 기관에 산재돼 있고 표준화도 부족하여 데이터의 유기적인 연계 분석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.
- － 일례로 원단 개발에 관심있는 기업이나 구매자가 최신 소재정보를 찾기 위해 Ktextile.net(섬유수출입협회), 패브릭다이브(다이텍연구원), 니트라이브러리(섬유소재연구원) 등 사이트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
- － 기업마다 색, 소재, 상품 등을 지칭하는 용어 및 코드가 달라서 이러한 용어 통일 및 정보분류 체계 표준화 필요
- * 폴리에스터(Polyester, PET, PL, Poly, PE 등), 환편물(Circular Knit, 컷소 Cut&Saw, 다이마루, Knit 등), 민소매(Sleeveless, 나시, 탱크탑 등)

[섬유패션 협회·기관별 데이터 보유 현황]

협회·기관명	보유 데이터
한국섬유산업연합회	· 패션 이미지(1,500만건), 기업 정보(4천건) · 국내 마켓 데이터(연도별, 성별, 지역별 패션시장 규모 통계 등)
한국섬유수출입협회	· 원단 소재정보(18만건), 기업 정보(5천건)
한국패션산업협회	· 패션브랜드 정보(1,200건), 기업 정보(300건), 상품 이미지(1,500건)
다이텍연구원	· 소재, 기업, 구매자 정보(5천건), 메타패션 3D물성&비주얼이미지(4천건), 3D시뮬레이션 데이터(55천건), 거래 경향 분석 데이터(4천건)
한국섬유소재연구원	· 니트 소재 정보(5천건), 원단열람실(오프라인) 병행 운영
한국의류시험연구원	· 섬유패션 시험인증 데이터(338만건)

- 섬유패션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면 수요 맞춤형의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져 데이터 활용 편의성이 향상되고, 빅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현재는 소재, 봉제, 시장 등 정보를 여러 기관에 접속해 일일이 수집했으나 앞으로는 동 플랫폼에서 원하는 정보를 일괄로 서비스 확인 가능
- 실시간으로 기업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생산의 신속성, 효율성 향상을 도모
- 그동안 패션넷을 통해 유행 및 마켓 정보를 일정한 시차를 두고 제공받던 기업은 앞으로 소비자 검색 및 소비 패턴, 경향, 소재 연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소비자 수요에 신속 대응 제품 기획-생산 가능
 - * 현재 패스트 패션 브랜드에서 기획부터 유통까지 최소 2~4주가 걸리는 데 비해, 글로벌 선도기업은 자체 빅데이터 수집 분석을 통해 기획~유통까지 단 3~7일 소요
- 다년간 축적된 소재·물성 데이터와 시험인증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소재별 불량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신소재·원단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 가능
 - * 새로운 원단 시제품 개발에 2~6개월 소요되던 것을 1~3개월로 단축, 수천만원이 소요되는 개발 비용도 절반 이하로 하락
- 산업부는 섬유패션 산업의 큰 흐름이 디지털과 친환경인데 특히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은 원사원단-염색 가공-봉제의류가 맞물려 돌아가는 스트림 산업 특성 상 섬유패션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
- 섬유패션 협·단체 등과 함께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과 표준화 동참을 유도해 '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'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

